

“임금체불 없는 추석” 집중지도...악의적 사업주는 수사

고용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발표 내달 8일까지 지도기간...건설업→조선업 등 확대 법 위반 의심 시 신고접수 없어도 ‘직권조사’ 실시

정부가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집중지도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지도 대상을 기존 건설업에서 조선업, 외국인 등 취약업종 및 계층으로 확대하고, 악의적인 체불의 경우에는 강제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집중지도는 건설업과 조선업,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지도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중간 대금인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석부터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나 보도 등으로 법 위반

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

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근로자 생계비 용자 급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주 용자 급리를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장들은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체불액은 6655억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청산율은 88.0%로 전년(85.2%)보다 소폭 높아졌다. 최이슬기자



도심 속 말려지는 고추 절기상 ‘처서’를 이틀 앞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추가 말려지고 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메신저 피싱 일당 검거...조사중

주범 4명 구속·범행 가담 27명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경제수사팀은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메신저 피싱 주범 A(2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인 뒤 신분증과 카드 비밀번호, 휴대폰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피해자 25명이 총 3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국내 중간책

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운 결제대행업체(PG사) 가상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왔다. 사이버경제수사팀은 피해금이 입금된 대표통장 거래내역 및 통신자료 분석하고 추적한 결과 이들을 검거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발생한 메신저 피싱 사기는 총 36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가량 증가했다. 충북청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이버금융사기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SNS 채팅으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금전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시스

전통시장 상인 눈썰미에 70대 상습 소매치기 덜미

140만원 상당, 금품 훔친 혐의

장날마다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70대 시장 상인들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전통시장에서 지갑을 잇따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과 18일 총 2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매일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60대 여성 B·C씨의 지갑과 귀금속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는데 정신이 팔린 틈을 노려 가방에서 지갑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서 인상착의를 특정, 시장 상인들을 통해 ‘장날마다 자주 보이던 이상한 사람’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장날이었던 18일 시장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상인의 목격담을 듣고 추적해 범행 후 도주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4월께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누բ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부여 폭우 실종자, 익산 금강변서 숨진채 발견

집중호우로 충남 부여에서 실종된 남성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께 A씨가 실종된 장소에서 약 44km 떨어진 전북 익산시 망성면 금강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실시, 그 결과 실종된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 55분께 실종 지점 약 40km 떨어진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금강변에서 함께 실종된 B씨

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시 44분께 1t 트럭을 운전하던 B씨가 “2명이 타 있는 트럭이 급류에 떠내려갈 것 같다”는 취지로 소방 당국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은산천 인근에서 2명이 실종된 채 차량만 발견됐다. 당시 부여군 은산면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10mm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은산천이 범람하고 주택 및 상가, 도로 등이 침수되는 등 잇따라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